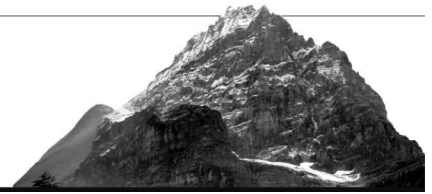


믿음에 굳게 서라 STRENGTHENED IN THE FAITH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골 2:6-7)



강사 김하나 목사

견고한 믿음을 향하여

경주입니까? 은혜입니까?

“When you run alone, it's called race. When God runs with you, it's called GRACE.”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에 이런 머리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뛰고 있다면, 그것은 경주(race)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함께 뛰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grace)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하고 느끼게 할 뿐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요 14:16-18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사람은 또한 믿음에 굳게 선,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뿌리내리고 세워지도록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시고 촉구하십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는 일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굳센 믿음, 단단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은 구호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셨고, 서신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견고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 17: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크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딤후 4: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남김없이(No Reserves), 후퇴 없이(No Retreats), 후회 없이(No Regrets), 이 짧은 세 단어의 묶음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난 윌리엄 보든(William Whiting Borden) 선교사의 성경책에 적혀 있던 말입니다. 그는 백만장자 부모 아래서 태어나 편안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세계를 여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부름을 받고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예일 대학교에 입학해서 그는 아침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고, 친구 몇 명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예일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와서 그가 4학년이 되었을 때는 1,300명의 재학생 중에 1,0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그는 마침내 그토록 꿈꾸던 길, 중국 내륙의 무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해 출발했으나 카이로에서 무슬림들의 언어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출처 : <https://www.linkedin.com/pulse/reserve-retreat-regrets-steve-shadrach>)

백수를 누리신 한경직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의 삶도 아름답지만, 그분들의 인생의 ¼밖에 살지 못했던 보든 선교사의 삶도 아름다운 이유는 그도 역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땅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부에도 가난에도 건강에

도 질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뽐히지 않는 삶을 이루어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로 선교사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터 : 특별새벽집회

1980년 7월 6일 명성교회가 세워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3월과 9월에 원로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어져온 특별새벽집회는 우리 믿음의 큰 물줄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명성교회 교우들의 견고한 믿음의 터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한 달씩 계속되는 특별새벽집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며, 한 단계씩 성장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장의 기억 속에 특별새벽집회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주체들은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강사는 바뀌었지만, 지금도 특별새벽집회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메말라 있던 심령이 다시 풍성해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예배로 드러지는 거룩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시간입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인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매우 평범한 주제입니다. 그리 대단한 것이 여기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비가 저수지를 채우고 눈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마련하는 평범한 식탁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피스티스(pistis)**’는 믿는다라는 동사 ‘**피스투오(pisteuo)**’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제임스 패커, *견고한 크리스천*, p. 19)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고 따르고 더 나아가 의지하고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신뢰 속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왜 믿음입니까?

루이스(C. S. Lewis)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아닌 ‘**믿음**’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전 1:20-21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시도하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함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한참 동안 돈을 모으고 휴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토록 원하는 곳에 여행을 갔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여권이 없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도 훌륭하게 구사한다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믿음은 먼저 ‘고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삶(죄)을 구해 주시는 구세주(Savior, Lord, Redeemer)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존재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예전에 그런 “고백을 했느냐”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백적인 믿음에만 정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 14: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히 2: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이 마땅하니라

더 나아가 ‘성장해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작고 큼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책망하시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커서 칭찬하십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 8: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 8: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셨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큰 믿음을,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 그리고 열망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마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린아이처럼, 더 빨라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매진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새벽집회는 혹 믿음이 미지근했던 사람들에게, 그 심장에 다시 열정과 열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 107:9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이로다

♪ 주님은 산 같아서 ♪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리 영원히